하남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0
마오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 등록 : 2016-12-13 11:19 | 수정 : 2016-12-13 11:20

0 0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증가해 12월 초 유행기준(8.9명/1,000명)을 초과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주의보 발령이다.

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접종을 하지 않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유행시기 중이더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1953년 이전 출생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매주 수요일 1시-4시 하남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하면 된다. 또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인플루엔자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하남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방접종·손씻기 당부

김정일 기자 작성 2016.12.13 17:30 댓글 0



[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지난 8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노약자 및 영아 등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 및 손씻기 등 감염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증가해 12월 초 유행기준(8.9명/1000명)을 초과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주의보 발령이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접종을 하지 않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유행시기 중이더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1953년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하남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하면 된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인플루엔자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하남시, 인플루엔자 주의보…위생수칙 준수 당부

기사등록 일시 [2016-12-13 10:48:26]

인쇄하기 메일전송 글자크게 글자작게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위험군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증가해 12월 초 유행기준(1000명당 8.9명)을 초과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주의보 발령이다.

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접종을 하지 않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유행시기 중이더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1953년 이전 출생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 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또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인플루엔자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하남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최순용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 12. 13. 14:52



하남시,인플루엔자 예방포스터=/하남시제공

하남/아시아투데이 최순용 기자 = 경기 하남시보건소는 지난 8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2월 초 1000명 기준 8.9명을 초과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주의보 발령이다.

하남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접종을 하지 않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유행시기 중이더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하남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1953년 이전 출생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매주 수요일 1시~4시 하남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하면 된다. 또한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인플루엔자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하남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 무료 접종

최규원 기자 입력 2016-12-13 14:47:41 글자크기 + −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 /질병관리본부 제공

하남시보건소는 13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영·유아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의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1953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며,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하남보건소에서 방문·접종할 수 있다. 만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증가해 12월 초 유행기준(1천명당 8.9명)을 초과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주의보 발령"이라며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 진료를 받아야 하며, 영·유아, 임신부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유행시기 중이더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다.